

우리말 표준 발음 지도법(1)

김 태 곤*

목 차

- I. 서 론
- II. 音韻의 발음 지도
 1. 子音의 발음 지도
 2. 母音의 발음 지도
- III. 長短音 지도
- IV. 결 론

I. 서 론

우리 인간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意思 疏通을 하는 동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준 발음으로 말을 주고 받아야 인간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 특히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나 교단에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말을 할 때에 표준 발음을 지켜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한 사람으로 교양의 수준을 의심 받을 수 있고, 대중에게 잘못된 발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 더욱이 교사는 말하기 지도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로서 구실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잘 다듬어지고 표준화된 발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에 치우친 말을 삼가야 한다.

표준 발음은 표준어의 발음을 일컫는데 하나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초월하여 널리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서의 표준

* 제주대 교수.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표준 발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엉터리 발음으로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에,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행히 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표준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화법 과목과 문법 과목을 두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1988년에 고시한 현행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 발음법'을 두어 말하기·듣기를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게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요즈음 간행된 국어사전을 보면, 표제어에 발음 표시(필요한 것만)를 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 표준 발음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이다. 발음 교육은 표준어의 정확성과 자연성이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발음의 교육'을 말한다. 표준 국어의 말소리 특징인 자음과 모음의 체계, 음절 구조와 장단음, 여러 가지 음운의 변동, 어감의 분화와 외래어의 발음 등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우선 이 논문에서는 音韻과 長短音의 발음에 관한 지도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音韻의 발음 지도

1. 子音의 발음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제 2항에는 표준어의 자음을 다음과 같이 19개로 하였다.

ㄱ ㅋ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ㅌ ㅋ ㅍ ㅎ

이들 자음은 모두 음운인데, 여기서 'ㄱ ㄷ ㅃ ㅆ ㅆ'은 된소리로 두 개의 單音으로 되었지만 소리는 하나이다. 또 'ㅌ ㅋ ㅌ ㅍ'은 거센소리로 'ㅌ+ㅎ, ㄱ+ㅎ, ㄷ+ㅎ, ㅂ+ㅎ'으로 분석되지만 역시 소리는 하나로 음운이다.

이들 자음은 발음기관의 調音場所와 調音方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여 나타낼 수 있다.

우리말 표준 발음 지도법(1)

조음방법 \ 조음장소		두 입술	윗 잇몸, 혀 끝	경구개, 혓바닥	연구개, 혀 뒤	목청 사이
파열음	예사소리 된 소리 거센소리	ㅂ ㅃ ㅍ	ㄷ ㅌ ㅌ		ㄱ ㅋ ㆁ	
파찰음	예사소리 된 소리 거센소리			ㅈ ㅉ ㅊ		
마찰음	예사소리 된 소리		ㅅ ㅆ			ㅎ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우리 국어의 자음들은 위의 표에서 보여준 장소와 방법에 의해서 음성이 만들어 지지만, 실제 국어 사용에서는 음운환경에 따라 음운이 변동된다. 즉 ‘량식’이 [양식]으로, ‘미닫이’가 [미다지]로, ‘신라’가 [실라]로, ‘책상’이 [채상]으로 발음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표에서 보여 주는 음성의 調音場所와 調音方法을 익히고, 그들 음이 여러 음운환경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를 고찰하여 정확한 발음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받침의 발음

국어의 음절 末 위치에서 실현되는 자음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가 있다. 訓民正音에서는 ‘ㅅ’이 하나 더 있어서 8終聲이었는데, 나중에 ‘ㅅ’이 ‘ㄷ’으로 실현됨으로써 현대국어에서는 7개가 되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홀받침 14개, 쌍받침 2개, 겹받침 11개 등을 쓰고 있으나,

- ① ‘ㄱ ㅋ ㆁ’은 [ㄱ]으로,
- ② ‘ㅅ ㅆ ㅈ ㅊ ㅌ ㅎ’은 [ㄷ]으로(‘ㅎ’은 음운환경에 따라 다름.)
- ③ ‘ㅍ ㅃ ㅍ’은 [ㅂ]으로,
- ④ ‘ㄴ ㄴ’은 [ㄴ]으로,
- ⑤ ‘ㄹ’은 [ㄱ] 또는 [ㄹ]로,
- ⑥ ‘ㅁ’은 [ㅁ]으로,

- ⑦ '래'은 [리] 또는 [비]으로,
- ⑧ '리 래 래'은 [리]로

발음된다.

- ①의 예, 키육[키육], 닭대[닭따], 녀[녀]
- ②의 예, 옷[을], 있대[인따], 짓[질], 꽃[핀], 술[술], 하웁[하은]
- ③의 예, 덮대[덮따], 읊대[읊따],¹⁾ 값[갑]
- ④의 예, 앉대[안따], 많대[만타]
- ⑤의 예, 닭[닥], 늑고[늘꼬]
- ⑥의 예, 삼[삼]
- ⑦의 예, 여덟[여덜], 밭대[밭따]
- ⑧의 예, 외곶[외골], 활대[활따], 달대[달타]

(1) 위에서 접받침 중 두 가지로 발음나는 ⑤의 '리'과 ⑦의 '래'에 대해 자세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리'은 語末 또는 子音 앞에서는 [기]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기슭'과 같은 단어도 [기슭]으로 발음해야 된다. 이것을 [기슭]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를 특히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기슭[기슭] 닭[닥] 훈[훈] 맑대[막따] 밭대[밭따] 읽대[익따]
 늑지[늑찌] 읽지[익찌] 밭습니다[박습니다]

그러나, 용언 語幹의 末音 '리'은 '기' 앞에서는 다음 예와 같이 [리]로 발음되는 것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맑게[말게] 맑고[말꼬] 맑거나[말꺼나]
 읽게[일게] 읽고[일꼬] 읽거나[일꺼나]
 밝기[발끼]

또, '래'은 語末 또는 子音 앞에서 다음 예와 같이 [리]로 발음된다.

1) '래' 받침을 가진 낱말은 '읊다'(吟)뿐이다. 이 말이 '읊게[을게], '읊고[을꼬] 등과 같이 받침이 [리]로 발음될 수도 있으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을게[을게], 읊고[을꼬], 읊기[을끼], 읊지[을찌], 읊습니다[을습니다]'처럼 [비]으로 발음하도록 정하였다. (제11항)

우리말 표준 발음 지도법(1)

여덟[여덜] 넓대[널따] 넓고[널꼬] 넓게[널게] 넓지[널찌]
 넓습니다[널쑤니다] 얇대[얇따] 얇고[얇꼬] 얇지[얇찌]

그러나, 용언 ‘밝-’은 예외로 子音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다음 예를 보자.

밝대[ㅂ따] 밝소[ㅂ쏘] 밝지[ㅂ찌]
 밝게[ㅂ게] 밝고[ㅂ꼬] 밝는[ㅂ는 → ㅂ는]

또한 ‘넓-’은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語末 또는 子音 앞에서 [널]로 발음되나,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

(2) 받침 ‘ㅎ’의 발음은 복잡하므로 유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표준 발음법 제 12항 참고). 특히 ‘ㅎ’이 初聲에서는 제음가인 [h]로 발음되지만, 終聲에서는 다 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①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이 연결되면, 뒤 음절 첫소리와 합음되어 [ㅋ, ㅌ, ㅊ]으로 발음된다.

농대[노타] 농고[노코] 농게[노케] 농던[노텐] 농지[노치]
 종대[조타] 종고[조코] 종게[조케] 종던[조텐] 종지[조치]
 망대[만타] 망고[만코] 망게[만케] 망던[만텐] 망지[만치]
 달대[달타] 달고[달코] 달게[달케] 달던[달텐] 달지[달치]

② 받침 ‘ㅎ’ 뒤에 ‘ㅅ’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ㅅ’을 된소리인 [ㅆ]으로 발음한다. 이것은 ‘ㅎ’이 뒤에 오는 ‘ㅅ’을 된소리로 발음나게 한 것으로 설명된다. 다음의 예 를 보자.

당소리[다소리] 당소[다쏘] 당소[만쏘] 싫소[실쏘]
 꿩습니다[꾼쑤니다] 꿩사오니[꾼싸오니]

③ 받침 ‘ㅎ’ 뒤에 ‘ㄴ’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ㅎ’이 ‘ㄴ’에 자음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이 때 받침 ‘ㅎ’은 [ㄷ]으로 바뀐 다음에, ‘ㄷ’이 뒤의 ‘ㄴ’과 同化되어 [ㄴ]으로 발음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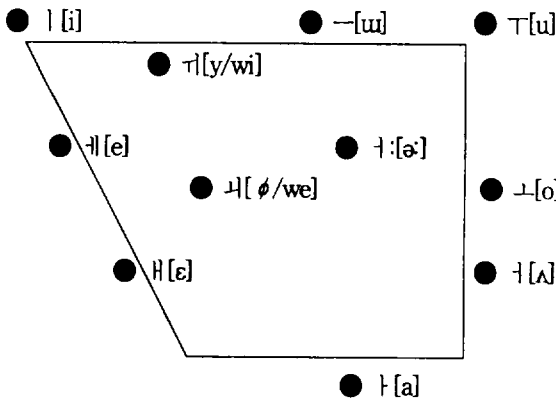
우리말 표준 발음 지도법(1)

이 중에서 單母音인 것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등 10개이며, 이 중 ‘ㅛ ㅠ’는 二重母音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음은 날숨이 목청 사이를 지나면서 목청이 떨어 올리게 되면, 그것이 입 안에서 共鳴이 됨과 동시에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에 따라 조절되어 만들어진다. 여기서 우리말의 單母音을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혀의 앞뒤 혀의 높이	前舌母音		後舌母音	
	平脣	圓脣	平脣	圓脣
高 母 音	ㅣ	ㅜ	ㅡ	ㅠ
中 母 音	ㅑ	ㅓ	ㅗ	ㅛ
低 母 音	ㅕ		ㅜ	

이것을 모음 사각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우리말의 모음 위치가 나타나지만 실제로 많은 言衆들은 잘못 발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발음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젊은 층에서 ‘ㅑ’[e]와 ‘ㅕ’[ɛ]의 발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 2음절 이하에서는 ‘ㅑ’[e]와 ‘ㅕ’[ɛ]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둘 사이의 중간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E]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어의 ‘ㅑ’[e]는 혀의 앞 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편 상태에서 발음한다. 즉 ‘前舌 平脣 半閉母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h’[ɸ]는 입을 제법 벌린 상태에서 혀를 아래 턱에 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높여 발음한다. 즉 ‘前舌 平脣 半開母音’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調音法을 강조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고, 학생들도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여야 자연스럽게 구별된 음을 낼 수 있게 된다. 다음의 語例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발음하게 한다.

제:주(濟州)	~	재주(才—)
제:일(第一)	~	재:일(在日)
개:(蟹)	~	개:(犬)
네가(2인칭)	~	내가(1인칭)
네 집	~	내 집
모:래(내일 다음날)	~	모래(沙)
명제(明濟)	~	명재(明宰)(사람 이름)
동내(洞—)	~	동내(洞內)
찌개(×)	~	지개(○)
지개(○)	~	지개(×)

(2) 앞의 모음 사각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말의 모음 ‘ㅈ’은 長音인 ‘ㅈ:’[ɸ:]와 短音인 ‘ㅈ’[ɸ]가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長音인 ‘ㅈ:’는 ‘—’와 短音 ‘ㅈ’와의 중간 모음으로 혀를 올려서 내는 ‘ㅈ:’로 발음한다.

長音인 ‘ㅈ:’의 語例는,

거국(學國), 거리(距離), 거머리, 절다, 널, 덜, 덩다, 멀다, 번민, 번지다, 벌[蜂], 설, 섬[島], 썰다, 언다, 얼, 얼다, 적다(少), 전화, 절다, 좇다, 헌법, 헐다, 형경

등을 들 수 있다.

또, 短音 ‘ㅈ’의 語例는,

거기, 거꾸로, 거두다, 거름, 거리[街], 거문고, 녀, 넓다, 덩개, 버섯, 번개, 번거롭다, 섬(단위명사), 얼굴, 얼음, 저녁, 적대[記], 청자(靑瓷), 허세, 허점(虛點)

등을 들 수 있다.

2) 李丞宰(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p.26.
李基文·金鑽宇·李相億(1984), 『國語音韻論』, 學研社, p.50.

우리말 표준 발음 지도법(1)

(3) 東南方言에서는 ‘-’[w]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a]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w] 발음을 정확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상도 출신의 인구가 지대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 출신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지장을 주고 있다. 다음 語例를 비교해 보자.

갈[kal]	銀馬[amma]	은어[ana]	음운[amun]	틀[t'al]
걸[kal]	엄마[amma]	언어[ana]	어룬[amun]	틸[t'al](李丞宰 1993:29)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 모음 ‘-’를 ‘-’로 잘못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에 대한 지도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거지]를 [그지]로, [거짓말]을 [그짓말]로, [딜]을 [들]로, [어른]을 [으른]으로, [얼마]를 [올마]로, [얼싸안다]를 [올싸안다]로, [얼씬거리다]를 [올씬거리다] 등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4) 또한 言衆들이 틀리게 발음하기 쉬운 二重母音 ‘-’[iy]에 대해 정확히 발음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는 ‘ㅈ ㅊ ㅋ ㆁ ㄷ ㄱ ㆁ ㆁ’와 함께 二重母音으로 발음되는데, 다른 二重母音과는 달리 [i] 뒤에 [y]가 오는 下降的 二重母音이다. 그런데 ‘-’에 대해, ‘표준 발음법’ 제 5항에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i]로,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고 하여 다음의 語例를 들고 있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혀비/혀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의의/강:이에]

이는 단어와 조사를 구별하여 許容 發音을 다르게 정한 것은 현실음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實辭 단어에 대해서는 제 1음절 이하에 오는 ‘의’를 힘들이지 않고 발음하려는 현실음 [이]를 허용한 것이다. 다음을 발음해 보도록 지도한다.

귀의(歸依)[-의/이]	금의(錦衣)[-의/이]
내의(內衣)[-의/이]	논의(論議)[-의/이]
대의(大意)[-의/이]	도의(道義)[-의/이]
동의(勳議)[-의/이]	명의(名義)[-의/이]
모의(模擬)[-의/이]	문의(問議)[-의/이]
물의(物議)[-의/이]	민의를(民意)[-의/이]
백의(白衣)[-의/이]	선의(善意)[-의/이]
의의(意義)[-의/이]	중의(衆意)[-의/이]
총의(總意)[-의/이]	피의(被疑)[-의/이]

항의(抗讎)[-의/이] 자의(恣意)[-의/이]

관형격 조사 '-의'도 言衆들에게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발음 [에]를 허용하여 발음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부사격 조사 '-에'와 변별되지 않는 맹점이 있으나 문장 구조로 구별하면 된다. 즉 관형격 조사 '-의'는 반드시 체언을 수식하지만, 부사격 조사 '-에'는 용언과 관련 있음을 주지시키면 된다. 그래서 다음 語例의 助詞는 [의]나 [에]로 발음해야 되는데, 많은 言衆들은 [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가을의[-의/에] 노래
 국민의[-의/에] 의무
 나의[-의/에] 길
 대통령의[-의/에] 담화
 신라의[-의/에] 통일
 온양의[-의/에] 온천
 계주의[-의/에] 감굴
 충무공의[-의/에] 거북선
 평화의[-의/에] 세계
 하루살이의 [-의/에] 인생

이러한 발음법을 많은 사람들이 '가을의[—으], 국민의[—으], 나의[—으]' 등으로 잘못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言衆들이 二重母音 '의'를 발음함에 있어 가장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은 첫음절의 '의'이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인들도 '의'[iy]에 대한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귀에 거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음 오른쪽에 표시한 잘못된 발음의 예를 보자.

의:거(義擧) [으거]
 의:견(意見) [으견]
 의과대학[의과—] [으과대학]
 의대(醫大) [으대]
 의:도(意圖) [으도]
 의:미(意味) [으미]
 의사(醫師) [으사]
 의성어(擬聲語) [으성어]

우리말 표준 발음 지도법(1)

의원(醫院) [으원]
의장(議長) [으장]

위의 語例를 오른쪽에 표기한 것같이 [으]로 잘못 발음하면 이는 單母音 ‘으’와 구별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二重母音인 ‘의’[iy]로 발음하도록 학교에서부터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Ⅲ. 長短音의 발음지도

발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長短音이다. 우리말에서 長短音을 잘 구분하여 발음하지 않으면, 뜻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경을 써서 발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의 길이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표준 발음법’ 제 3장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국어사전에서도 표제어에 대해 음절 오른쪽에 長音 표시(:)를 하여 놓았다.

다음과 같은 同綴異義語는 일부러 長短音을 익힐 필요가 있다.

1. 고유어 명사

<長音>		<短音>
가:매[緇]	~	가매[旋毛]
굴:(窟)	~	굴[鱗]
내:川	~	내[煙]
눈:[雪]	~	눈[目]
돌:[石]	~	돌[週期]
말:[言]	~	말[馬, 斗]
매:[鷹]	~	매[鞭]
발:[簾]	~	발[足]
밤:[栗]	~	밤[夜]
배:(倍)	~	배[船, 腹, 梨]
벌:[蜂]	~	벌[罰]
섬:[島]	~	섬[石]
종:[奴婢]	~	종[鐘]

첫음절에서 長音으로 발음되던 말도 제 2음절 이하에 오면 短音으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첫눈[천눈], 참말[참말], 알밤[알밤], 일벌[일:벌] 등에서 제 2음절의 말이 短音으로 발음된다.

2. 한자어 명사

한자어는 同綴異義語가 특히 많다. 이들을 글을 쓸 적에는 한자로 구별하여 표기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적에는 음의 길이로 구별하여야 한다. 물론 문맥을 통하여 同音異義語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올바른 長短音으로 정확한 발음 습관을 가져야 한다.

<長音>	~	<短音>
감:상(感想)	~	감상(鑑賞)
고:가(古家)	~	고가(高架)
고:적(古蹟)	~	고적(孤寂)
광:주(廣州)	~	광주(光州)
금:수(錦繡)	~	금수(禽獸)
난:민(亂民)	~	난민(難民)
단:가(短歌)	~	단가(團歌)
대:전(大戰)	~	대전(大田)
무:용(舞蹈)	~	무용(無用)
방:화(放火)	~	방화(防火)
부:자(富者)	~	부자(父子)
사:과(謝過)	~	사과(沙果)
성:인(聖人)	~	성인(成人)
시:가(市街)	~	시가(詩歌, 嫗家)
시:조(始祖)	~	시조(時調)
신:장(腎臟)	~	신장(身長)
영:동(永同)	~	영동(嶺東)
영:리(伶俐)	~	영리(營利)
유:명(有名)	~	유명(幽明)
이:사(理事)	~	이사(移徙)
정:상(正常)	~	정상(頂上)
정:씨(鄭氏)	~	정씨(丁氏)
조:씨(趙氏)	~	조씨(曹氏)
화:장(火葬)	~	화장(化粧) ³⁾

3. 용언

<長音>		<短音>
갈:대[耕]	~	갈대[交替]
간:대[步]	~	건대[收]
굽:대[麗]	~	굽다(추워서 손이 뻘뻘하다)
달:다(음식이 너무 끓어 졸다)	~	달대[甘, 秤]
말:대[勿]	~	말대[卷]
묻:대[問]	~	묻대[埋]
물:대[賠償]	~	물대[咬]
작:대[少]	~	적대[記]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말 표준 발음법 중 子音과 母音의 발음법과 長短音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도하여야 할 것인가를 밝혔다. 모름지기 발음이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르게 익혀야 성인이 되어서도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선 학교 교육에서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할 우리말의 발음교육을 音韻의 발음지도에 두고, 표준 국어에서 제정한 子音과 母音의 발음법을 알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音聲이란 앞뒤의 음운환경에 따라 변동되므로 그 변하는 법칙을 잘 알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국어의 발음 특징을 알고, 틀리기 쉬운 발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함을 지적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① 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우리는 종성의 발음법을 알아야 한다. 국어의 받침에는 홑받침, 쌍받침, 겹받침 등이 있지만, 실지로 음절 말에서 각각의 대표음으로 실현되는 子音은 7개임을 가르치고, 실지 예를 들어 발음토록 한다. 그 중에서 예외로 원칙에서 벗어나는 용언인 ‘뱀’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하여 지도한다.

3) 南廣祐(1982), 『國語國字論集』, 一潮閣, pp.34~35.

② 받침 ‘ㅎ’의 발음은 복잡하므로 특히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받침 ‘ㅎ’ 음의 뒤에 어떠한 음이 오느냐에 따라 이 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규칙적이므로 규칙과 실지 예를 병행해서 지도한다.

③ 우리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單母音의 정확한 발음법을 모음 사각도를 이용하여 지도한다. 특히, 틀리기 쉬운 ‘개’[e]와 ‘해’[ɛ]의 구별법과 實例, ‘기’[ɔ]와 ‘기’[ʌ]의 정확한 구별법과 實例를 들어 지도한다. 또한 오류가 심한 二重母音 ‘기’[iy]에 대하여 많은 實例를 들어 정확한 발음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우리 국어는 同綴異義語가 많은데 口語에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長短音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발음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同綴異義語의 많은 語例를 들어 주어 익히도록 하고, 長短音 표시가 되어 있는 국어사전을 많이 이용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南廣祐(1982). 『國語國字論集』. 一潮閣.
南廣祐·李喆洙·兪萬根(1982). “표준 국어발음사전 간행을 위한 조사연구.” 『語文研究』, 33. 一潮閣.
박갑수·김광해·박호영(1995). 『화법』. 한샘출판(주).
송철의(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李基文·金鎮宇·李相億(1984). 『國語音韻論』. 學研社.
李丞宰(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이은정(1988). 『한글맞춤법 표준어 해설』. 大提閣.
李喆洙(1993). “發音 敎育의 이모저모.” 『새국어생활』, 3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全英雨(1987). 『國語話法論』. 集文堂.